연중 제14주일 강론(2019년 7월 7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첫인사로 한국말로 “찬미 예수님!”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아직까지도 천주교 신자들의 공식 인사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미사 시작할 때 “찬미 예수님!”이라고 하고 인사합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본당에서 선교왕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미 예수님!”하고 인사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가게에 큰 성모님 상하고 큰 십자가상을 달아 두었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그거죠? 천주교 신자 집에는 성모님 상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개신교 십자가에는 못박히신 예수님 상이 없습니다.

 개중에 천주교를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옷가게 주인에게 “천주교 신자세요?”라고 물어보면 “네!”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손님 중에 천주교에 관심이 있거나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당 전화 번호와 미사 시간을 알려주고 성당으로 초대 했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일 년에 50명 이상 씩을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교 입니다. ’선교 참 쉽죠?’ 우리 주변에는 성당에 관심이 있거나 냉담하는 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초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옆에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성당 한 번 와보지 않고 사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냉담하시는 분들 보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성당에 와 계신 분들을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교를 하신 적이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국에 휴가갔을 때, 명동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부탁받게 되어서 명동으로 갔는데, 시간이 남아서 주변을 좀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슴에 띠를 두르고 막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저 무심결에 받아보았는데, 성당을 소개하는 선교 책자였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저보고 그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총각, 성당 다니면 좋은데.” 그러면서 제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 성당 다녀요!”

 “어느 성당 다니는데?”

 “예, 좀 멀리서 다녀요. 미국에서 성당 다닙니다.”

 “아 그래요? 매일 미사 나가보세요. 미국에서 쉽지 않겠지만, 미사를 매일 다니면 참 은총을 많이 받는답니다. 미국 어디서 살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매일 미사 다닙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시네요. 주님 은총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동 성당에 미사 시간이 되어서 가서, 미사를 잘 봉헌하고 나오는데, 글쎄 아까 만난 그 할머니가 오시는 겁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오신 신부님이셨구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는 건네는 겁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맛있는거 사 드세요!”

 참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셨고,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추수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고 하십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찔러봐야 압니다. 무조건 찔러보는 것입니다. 젓가락이 들어가면 꺼내면 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찔러보면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일흔 두 명의 제자들을 지명하여 하느님 나라 백성을 수확하도록 파견하십니다.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파견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추수할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성당일에 봉사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변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작은 모범을 보여주면,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성당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당 다닌다는 사람이 사는 꼴이 개판으로 살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성당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씨라도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